



CLASSIC FORMAL STYLE

슈트와 셔츠는 ST듀폰, 구두와 벨트는 크로켓앤존스, 시계는 애플워치 by Hermes, 모두 본인 소장품.

MANNERS MAKETH MAN

완벽한 슈트를 입은
남성에게서는 진정한 신사의
품격이 느껴진다.
유중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정승우 이사장이 그렇다.

진행 전영미 기자
사진 이보영(Roc Studio)
헤어 정유미(폴리페 02-548-7473)
메이크업 화연(폴리페)

예술은 자연의 현상을 담기 위해 시작됐다. 자연을 기록하고 자연의 소리를 따라 한 것이 바로 미술이고 음악인 것이다. 그런 만큼 예술은 한 공간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취지로 설립된 것이 바로 비영리 공익재단인 유중재단의 유중아트센터다. 지금은 흔해졌지만 음악과 미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면서 6년 전 개관 한 이곳의 운영을 맡고 있는 이가 바로 정승우 이사장이다.

“문화예술은 향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말해보거나 익숙하지 않은 향기에는 거부감이 들면서 두통이 생기죠. 하지만 자주 말다 보면 익숙해지고 거부감이 없어집니다. 문화예술도 그렇습니다. 유중아트센터는 아트센터에 대한 부담감이나 선입견 없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관했습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메인스트림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발상과 진취적인 리더십을 소유한 정 이사장은 정작 스타일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다. 심플하면서도 클래식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 포멀한 슈트와 미니멀한 블레이저, 베이식한 테넌 등이 그가 즐겨 입는 아이템이다.

“스타일에 대해 잘 알진 못합니다. 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뒤편 지나친 것은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저는 블루나 그레이 등 무난한 컬러와 무난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직업상 아무래도 포멀한 비즈니스 슈트를 즐겨 입게 되는데 그럴 때도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선택하고 화이트 셔츠와 컬러풀한 넥타이로 포인트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이런 스타일링은 그의 직업과도 관계가 있다. 직업상 공연이든 전시회든 주인공이 돋보여야 하는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자신의 화려한 룩이 시선을 분산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면서도 클래식한 스타일의 블랙 슈트나 네이비 슈트를 입어 격식은 갖추되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요즘 슬림 핏 스타일의 슈트가 인기라던데 저는 그런 옷을 좋아하지 않아요. 일할 때 불편하기 때문이죠. 저는 아트센터에서 일을 보기도 하지만 건설현장에 나가기도 하는데, 현장에서 도면을 고치고 도면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연장을 들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웃음) 그러다 보니 너무 핏감이 좋은 슈트나 밝은 계열의 옷은 불편합니다.”

일주일 내내 슈트를 입을 일이 많지만 휴거나 주말에는 티셔츠에 데님처럼 편안한 차림을 좋아한다. 이 아이템들 역시 베이식하면서도 심플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중간 톤의 적당한 핏감의 티셔츠에 캐주얼한 재킷이나 블루종을 걸치고 톤온톤 컬러의 팬츠를 매치한다. 이렇다 하게 멋을 내거나 꾸미지 않는다.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리는 시계를 착용하는 정도다.

“심플한 것이 가장 멋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심플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런 아이템들을 때와 장소에 어울리게 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콜린 퍼스의 우아하고 품격 있는 슈트 룩으로 화제가 됐던 영화 <킹스맨>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매너가 남자를 만든다(Manners maketh man)’. 진정한 남자라면 잘 차려입은 옷만큼 매너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에게서 내내 영국 신사 같은 품위가 느껴졌던 건 준수한 외모도, 은은한 매력을 풍기는 스타일링도 아닌 지나침 없이 온화한 그의 에티튜드 때문이었던 것 같다.



CASUAL CHIC STYLE

블루진은 ST.듀폰, 티셔츠는 휴고보스, 데님은 아르마니. 모두 본인 소장품.



SEMI FORMAL STYLE

재킷은 휴고보스, 티셔츠는 ST.듀폰, 면 팬츠는 클럽 모나코, 스니커즈는 디올 홈므. 모두 본인 소장품.
뒤에 보이는 작품은 관원진의 (Visual Poetry Series).